

16세기 서사문학사의 지평과 그 미학적 층위*

정 출 헌**

<차 례>

1. 머리말
 2. 16세기 서사문학사의 지평을 읽는 시각
 3. 16세기 서사문학의 유형과 그 미학적 층위
 - 가. 人物敍事: 견문을 토대로 한 사실과 허구
 - 나. 傳奇小說: 전기적 서사문법의 계승과 변주
 - 다. 敍事寓言: 사대부의 욕망을 담은 寓意와 公論
 4. 맺음말
-

1. 머리말

한 동안, 초기 고전소설사의 구도는 『금오신화』가 창작된 15세기에 서 <홍길동전>이 창작된 17세기로 뛰어넘곤 했다. 16세기라는 연대기를 비웠던 셈이다. 대신, ‘최초의 한문소설’이라든가 ‘최초의 국문소설’이란 이름으로 그 허전함을 대신했다. 이후, 『기재기이』와 같은 傳奇, <천군전>·<수성지>와 같은 假傳, <대관재기몽>·<원생몽유록>과 같은 夢遊錄을 서사 갈래로 포괄함으로써 15세기에서 17세기로 넘어가는 고전소설사의 맥락을 어느 정도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17세기 소설사가 펼쳐 보인 국면, 곧 <최척전>·<운영전>과 같은 전기소설이 현실성을 강화하면서 서사적 편폭을 확대했다든가 <구운몽>·<창선감의록>과 같은 장편 국문소설이 성행하게 된 내적 계기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41-A00279).

**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jch2019@pusan.ac.kr).

가 온전하게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 또는 16세기가 이전 시기와 어떤 연계성, 또는 차별성을 갖는가도 정치하게 밝혀지지 못했다. 16세기는 여전히 고립·분산적으로 다루어졌던 것이다. 이런 단절적 이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그간 주목하지 않았던 서사문학사의 지평과 그 미학적 층위를 변밀하게 탐구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최근 발굴·소개된 사실들은 서사문학사에서 차지하는 16세기의 위치를 새로운 시각으로 읽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우선, 중국 大連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던 朝鮮刊本 『금오신화』가 발견되었는데, 간행 시기는 대략 1546~1567년 사이로 추정된다.¹⁾ 석실에 감춰두고 뒷사람을 기약했다는 『龍泉談寂記』의 전언과 달리 『금오신화』는 버젓이 공개되었던바, 16세기 고전소설의 창작·향유 및 유통 양상을 새롭게 고찰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둘째, 국문필사본 <설공찬전>이 발굴됨으로써,²⁾ 구체적인 작품을 놓고 당대의 소설 창작 관습과 미적 특질을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더욱이 이 작품을 두고 극단적 논란이 벌어졌던 16세기 초반의 분위기는, 고전서사에서 즐겨 다루던 神異의 행방을 가늠하는 사건으로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셋째, <오륜전전>·<왕시봉전>과 같은 중국의 백화체 회각이라든가 <주생전>·<위정천전>과 같은 우리의 전기소설이 국문으로 번안·번역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³⁾ 이들 작품의 표기문자 전환 과정을 통해 당대 사대부 문인의 문예 취향은 물론 16세기의 문학사회학적 지반을 짚어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끝으로, 1579년 이전에 창작된 <최문헌전>을 통해 16세기 전기소설의 미적 층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실감할 수 있게 되었다.⁴⁾ 이를테면 사대부 문인의 세련된 문예 취향과 사회 저층에 관통

1) 최용철, 「『금오신화』 朝鮮刊本 발굴과 판본에 관한 고찰」, 『민족문화연구』 제32집, 민족문화연구원, 1999.

2) 이복규 편저, 『새로 발굴한 초기 국문·국문본소설』, 박이정, 1998.

3) 심경호, 「오륜전전에 대한 고찰」, 『에산학보』 제8집, 에산학회, 1989; 이복규, 「형차기·왕시봉전·왕십봉기우기의 비교 연구」, 『한국문화논총』, 한국문화학회, 2001; 김일근, 「周生傳과 韋敬天傳 諺解의 連綴本(유성던·위성던) 출현에 따른 書誌的問題」, 『겨레이문학』 제25집, 겨레이문화회, 2000.

4) 정출현, 「최고운전을 통해 읽는 초기 고전소설사의 한 국면」, 『고소설연구』 제

하던 무속적·도가적 사유의 층위가 병존·혼합되면서 독특한 미적 특질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이같은 새로운 발굴과 그로부터 촉발된 일련의 연구를 통해, 소설의 싹을 틔운 15세기와 소설의 시대를 일군 17세기를 연결시켜 주는 연대기로서 16세기는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⁵⁾ 하지만 여전히 15세기에서 17세기를 이어주는 교량적 역할로만 파악하고 있는데, 또는 새로운 작품의 편입을 통해 양적인 풍성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16세기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16세기는 어느 시기에 비해 새롭고도 활기에 찬 시대였다. 조선의 건국이념이라 할 성리학적 사유와 질서가 전사회적인 차원으로 확산·보급되던, 이른바 개혁과 열정의 시대였던 것이다. 이런 사회적 풍토는 이전 시기의 전통을 대대적으로 청산하고, 새로운 시도를 과감하게 추진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서사문학이라고 해서 그런 분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런 까닭에 ‘지속과 연계’의 관점과 함께 ‘단절과 변주’의 관점을 함께 아우를 때 비로소 16세기는 온전하게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 유의하여 16세기 서사문학사의 지평을 간략히 짚어본 뒤, 지속과 변주의 관점에서 중요한 유형을 중심으로 서사문학의 미적 특질을 살펴보기로 한다.

2. 16세기 서사문학사의 지평을 읽는 시각

① 나말여초에서 조선 전기에 이르는 서사문학사는 주로 傳奇小說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특히, 『수이전』과 『금오신화』가 관심의 대상이다. 하지만 전기소설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선 15~6세기는, 전기소설 외에도 다양한 서사 양식이 경합을 벌이던 시대였다. 『금오신화』라

14집, 한국고소설학회, 2002.

5)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민족문학사학회에서 “16세기 소설사의 재인식”이란 제목으로 2003년 개최한 심포지엄을 꼽을 수 있다. 여기서는 <설공찬전>, 몽유록, 심성가전, <최고운전> 등 16세기 소설사의 판도를 잘 보여주는 네 가지 유형을 통해 16세기가 고전소설사에서 주목해야 할 연대기임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발표된 논문들은 모두 『민족문학사연구』 제25집, 민족문학사학회, 2004의 기획 논문으로 실렸다.

는 전기소설의 산출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수이전』으로부터 이어져온 내적 계보라든가 『전등신화』로부터 받은 외적 충격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전기소설이라는 단일한 敍場이 아니라 15-6세기 사대부 문인이 지니고 있던 폭넓은 문예취향과 독서문화라는 또 다른 敍場을 고려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김시습과 반대 지점에 위치한 成任·成倪·徐居正·姜希孟·宋世琳 등 훈구파 문인의 『太平閑話滑稽傳』·『慵齋叢話』·『村談解頤』·『蟹賦析』과 같은 筆記·稗說類, 그리고 『太平廣記』·『剪燈新話』·『剪燈餘話』와 같은 志怪·傳奇類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⁶⁾ 근대문학적 관점에서 볼 때, 필기·패설류와 지괴·전기류는 서로 명확하게 구분될 법하다. 하지만 이들은 共同의 母胎에 기반하고 있었고, 類似한 문예의식에서 창출된 고전서사였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魚叔權은 『稗官雜記』에서 『금오신화』를 『태평한화골계전』·『춘담해이』·『용제총화』 등과 함께 ‘東國小說’라는 이름으로 묶고 있었다.⁷⁾ 우리의 생각처럼, 이들의 갈래간 변별 인식이 뚜렷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뿐만 아니라 蔡忠는 <薛公贊傳>과 같은 지괴·전기류와 『村中鄙語』와 같은 필기·패설류를 함께 짓고 있다. 한 작가에게 있어서도 양자는 경계는 뚜렷한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변별적인 의식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음의 발언에 유의해 보자.

무릇 朝野 사대부의 한 마디 말이든 하나의 일이든 귀에 들리면 바로 적고 붓으로 글을 지어내, 名教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담소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江湖에 묻혀 사는 자가 새롭게 지어낸 新話가 아니라 바로 國老가 東軒에서 나눈 筆談인 것이다.⁸⁾

6) 조선전기 필기류의 산출과 관련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할 것. 이래중, 「선초 필기의 전개 양상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7; 임완혁, 「조선전기 필기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7) 魚叔權, 『稗官雜記』, 민족문화추진회 편, 『국역대동야승』 권1, 민족문화추진회, 1971, 774~775쪽.

8) 梁誠之, <東國滑稽傳序>, 무악고소설자료연구회 편, 『한국고소설관련자료집 I』 태학사, 2001, 78쪽.

양성지는 위의 인용문에서 서거정의 『태평한화골계전』이 지닌 성격과 가치를, 새롭게 지어낸 이야기와 대비시켜 놓고 있다. 江湖 野人이 지은 ‘新話’와 東軒 國老가 지은 ‘筆談’은 명확히 구분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강호에 묻혀 사는 자가 새롭게 지어낸 이야기’란, 아마도 김시습이 창작한 『금오신화』와 비슷한 부류를 염두에 둔 것으로 짐작된다. 筆談과 新話는 넓게 보면 小說이란 이름으로 함께 묶을 수 있지만,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날카롭게 구별되는 그런 갈래였던 것이다. 실제로 15-16세기 사대부 문인의 문예 풍토에서 되돌아 볼 때, 이들은 연계되기도 하고 구분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작품 가운데 <月團圓>이란 작품이 있다. 順菴 舊藏本 『태평한화골계전』에 실려 있는 이것은 笑話類 稗說과 愛情 傳奇小說의 갈래간 혼효를 보여주고 있다.⁹⁾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16세기 서사문학의 지평을 살피면서 우리는 필기·패설류와 지괴·전기류의 엄밀과 갈림의 양상을 세심하게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조선 전기 서사문학사의 문예미학적 성취와 문학사적 위상을 논할 때, 누구도 『금오신화』를 피해갈 수 없다. 소외된 중세 지식인의 내면풍경을 이보다 곡진하게 그려낸 작품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오신화』가 이룩하고 있는 이런 서사미학은, 거슬러 올라가면 『수이전』에 실린 <최치원>에서 그 단초를 엿볼 수 있다. 거기서도 정련된 서사로 갈무리한 문인 지식인의 고독한 정조와 울울한 내면풍경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¹⁰⁾ 하지만 나말여초에 <崔致遠>과 같은 작품과 <薛氏女>·<都彌>·<溫達>과 같은 작품이 공존했던 것처럼, 15-16세기 서사문학사는 문인지식인 특유의 문예미학을 지향했던 층위와 민간에서 떠돌아다니는 이야기 특유의 투박함을 간직했던 층위가 병존하고 있었다. 이런 양상은 민중의 말이나 생각이 지배층의 말이나 생각과 활발하게 뒤섞이고, 그에 따라 세계관에 있어서도 교섭과 혼란이

9) 박희병, 『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 소명출판, 2005, 161~162쪽.

10) <최치원>이 이런 정조를 띠게 된 역사적·사회적 배경에 대해서는 이동환의 「쌍녀분기의 작자와 그 창작 배경」, 『민족문화연구』 제37집,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2를 참조할 것.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던 변혁기에 전기소설이 발달했던 사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¹¹⁾

최근 전편이 공개된 『愼獨齋手澤本傳奇集』은 17세기 이전에 창작·향유되던 전기소설의 이런 복잡다단한 층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여기에 실려 있는 <崔文獻傳>은 문제적이다. 1579년 이전에 창작된 이 작품은, 조선 전기 상층 문인 주변에서 회자되던 ‘사대부 일화적인 담론’과 사회 저층에서 구비 전승되던 ‘민간적·무속적인 담론’이 결합하여 형성된 전기소설이다.¹²⁾ 그런 까닭에 『금오신화』에서 느낄 수 있는 정련된 서사미학 대신, 여기서는 구비서사에서나 느낄 법한 투박한 서사미학을 느낄 수 있다.¹³⁾ 그건 우리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조선 전기=사대부 문학=성리학적 세계관’이란 등식을 비판적으로 되짚어보아야 할 근거가 되기도 한다. 조선 전기 사대부들이 표면에 내세우고 있는 儒家的 世界觀의 뒤편에는, 오랫동안 전래되어 오던 佛教的·道家的·巫俗的 世界觀 또한 면면하게 이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조선 전기 문인사대부의 이런 세계관적 복합성이야말로 조선 전기 서사문학사를 활기차면서도 역동적으로 만들었던 기본 동력이다. 인접하거나 다소 거리가 먼, 아니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갈래 및 세계관조차 너끈하게 자기 품안으로 끌어안는 괴력을 발휘하던 서사문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때문에 조선 전기 사대부 문학의 세계관과 그 서사문학적 발현에 유년하면서 16세기 서사문학사의 층위를

11) 박희병, 「한국고전소설의 발생 및 발전단계를 둘러싼 몇몇 문제에 대하여」, 『한국 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12) 정출현, 「최고운전을 통해 읽는 초기 고전소설사의 한 국민 - 작품의 형성과정과 표기 문자의 전환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제14집, 한국고소설학회, 2002. 12.

13) <최고운전>보다 뒤에 창작된 것으로 보이는 『淑香傳』 역시 이와 비슷한 면모를 띠고 있다. 이 작품 역시 17세기 후반에 이미 국문/한문으로 표기 문자를 전환시켜가면서 널리 읽혔다. 『숙향전』에서 민간 무속적 세계관의 특징적 양상에 대해서는 조용호, 「숙향전의 구조와 의미」, 『고전문학연구』 제7집, 한국고전학회, 1992; 신재홍, 「숙향전의 미적 특질」, 『다국 이수봉 박사 정년기념 고소설연구논총』, 경인문화사, 1994; 최기숙, 『17세기 장편소설 연구』, 월인, 1999를 참조할 것.

복합적인 시각으로 조망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③ 서사문학사에서 16세기는 사대부 문인의 주변에서 창작·향유되던 방대한 분량의 필기·쇄설과 지괴·전기, 그리고 문인 지식인의 세련된 서사미학을 보여주는 전기소설과 보다 저층에서 구축된 투박한 미의식을 보여주는 고전서사 작품이 각축을 벌이던 시기였다. 하지만 이런 맥락과 함께 중국에서 유입된 백화소설을 전기소설의 서사문법에 맞도록 축약하여 번역·번안한 작품에도 눈길을 돌릴 필요가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희곡 가운데 하나인 『荊釵記』를 한문/국문으로 번안·번역한 한문본 <王十朋奇遇記>와 국문본 <왕시봉전>,¹⁴⁾ 그리고 명나라 丘濬의 『伍倫全備記』를 洛西居士 李沆이 번안·번역하여 간행한 한문본/국문본 <五倫全傳>¹⁵⁾이 그것이다. 이들은 장편의 白話體 戲曲을 단편의 文語體 한문소설로 전환시킨 작품인데, 그 과정에서 교화 의도를 강하게 표방하고 있다. ‘흥미’와 ‘교화’라는 이율배반적인 지향을, 아슬아슬한 긴장 관계 속에서 서사 미학으로 구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사실은 이전 시기와 차별화된 시각으로 16세기를 읽어야 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燕山君을 몰아내고 새로운 임금을 옹립한 중종반정은 이 시기를 대변하는 강력한 상징이다. 중종반정을 주도한 사대부들은 자신들이 설계했던 ‘성리학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군왕을 위시한 모든 사람에게 도덕적 실천을 강제하고 그를 위해 전사회적인 교화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한다. 『三綱行實圖』·『小學』·『朱子家禮』·『鄉約』과 같은 교훈서를 간행·보급함으로써, 個人·家族·共同體의 차원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세세하게 가르쳤던 것이다. 그 가운데 『삼강행실도』는 상층과 하층을 망라해, 가장 영향력 있는 교훈서로 손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에서 오고간 다음 대화를 보면, 교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사정을

14) 이복규, 「왕시봉전·왕십봉기우기·형차기의 비교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29집, 한국문학회, 2001.

15) 윤주필, 「16세기 사림의 분화와 낙서거사 이항의 오류전전 번안의 의미」, 『국어국문학』 제131호, 국어국문학회, 2002. 9.

짐작할 수 있다.

『삼강행실도』 같은 책은 모두 예전에 찬집한 것으로 中外의 士民들이 보통으로 여기고 염두에도 두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책 가운데 법 반을 만하고 경계할 만한 자취를 뽑아 모아 책을 만들어 중외에 인쇄·반포한다면 아마도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경계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 풍속을 교화시키는 데에 도움이 있을 것이니, 상의 분부가 지당하십니다. 다만 지방의 궁벽한 시골 사람들은 글을 아는 자가 적어서 새로운 책을 반포하더라도 두루 알게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諺書라면 백성들도 알 수 있으니 찬집할 때에 언문으로 번역하기도 하여 두루 알리는 데 힘쓰는 것이 어떠합니까?16)

중종 때 이씨, 개혁의 주체세력은 『삼강행실도』를 통한 교화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첫째 너무 익숙하게 알려진 이야기들이라 모두 예사로 여기고 있으니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것, 둘째 착한 것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만 말하지 말고 악에 대한 경계를 함께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 셋째 문자를 모르는 시골 사람을 위해 언문으로 번역해서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17) 새로운 내용의 이야기를 필요로 하고, 권선징악의 구조를 필요로 하고,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표기문자로 써야 하는 상황에 가장 적합한 갈래가 서사갈래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실제로 16세기에는 주세붕의 <道東曲>과 같은 景幾體歌라든가 정철의 <訓民歌>와 같은 時調와 같은 교술/서정갈래를 동원한 것은 물론이고, 오락적·풍속적인 서사갈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중국의 백화체 장편소설들이 <오류전전>·<왕십봉기우기>와 같은 단편소설로 축약·번안되고, 나아가 국문으로까지 번역되어 목판으로 출간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16) 『중종실록』, 중종 31년 5월 12일(병인).

17) 『중종실록』, 중종 31년 5월 12일(병인)에는 중종의 다음 전교에 이런 상황이 집약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러나 『삼강행실도』는 중외의 사람이 모르는 자가 없으니 반드시 심상히 여길 것이다. 또 이 책에는 다만 착한 것을 법 받아야 한다는 것만 말하였고 악한 것을 경계하는 것이 없다.”

문학사적 사건이다. 때문에 소설의 본질이기도 한 ‘서사적 흥미’와 ‘이념적 교화’가 어우러진 서사문학적 성취는, 16세기 서사문학사의 지평을 논의할 때 반드시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된다.¹⁸⁾

3. 16세기 서사문학의 유형과 그 미학적 총위

가. 人物敍事: 견문을 토대로 한 사실과 허구

㉠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이념으로 국가를 건설한 조선 전기 사대부들은, 자신의 믿음을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관철시키고자 했다. 그 가운데 민감한 사안 가운데 하나는 세계를 해석하는 방식이었다. 현실세계와 현실세계를 넘어선 초현실세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두고 고민했던 것이다.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되지 않는 초현실세계는, 그들을 늘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유가적 祭禮 역시 귀신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니, 귀신의 존재를 용인하는 초현실세계를 부정하지 못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보면, 그들은 초현실세계에 대한 전면적 부정보다는 초현실세계를 유가적인 세계관에 입각해 재해석하고자 했던 듯하다. 『國朝五禮儀』에 ‘厲祭’라는 항목을 설정한 것도 그런 까닭이다. 억울하게 죽어 원귀가 된 부류를 뽑아 국가에서 제사를 치러줘야 할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들에 대한 민간의 섬김을 미신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해 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귀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대신 국가적 제의 대상에 등록하는 방식을 취했다. 귀신을 둘러싼 의혹을 유가적 질서 내부로 수렴·관리하고자 했던 것이다. 귀신에 대한 담론이 조선 전기에 빈번하게 개진되었던 것은 그런 시대적 정황을 암시한다.¹⁹⁾

그런 맥락에서 볼 때, 憑依의 문제를 다룬 <설공찬전>은 흥미롭다. 16세기 벽두에 불거진 <설공찬전>에 대한 논란은, 이후 전개될 서사

18) 정출현, 「표기문자의 전환에 따른 고전소설 미학의 변이양상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제24집, 민족문학사학회, 2004.

19) 조선시대 사대부와 厲祭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B. 알라빈, 「조선시대 厲祭의 기능과 의의 — ‘똥귀신’을 모셨던 儒生들」, 『동양학』 제31집,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01을 참조할 것.

문학의 흐름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유가적 의식이 철저하지 않았던 한 '부족한 사림' 채수를 공격함으로써 밖으로는 <설공찬전>을 유통시키고 있는 불미한 사회 풍조에 경종을 울리고, 안으로는 사림 내부의 의식화를 고양시키려 했다는 논의는 시사하는바 많다. 전기소설을 통해 발현되던 神異에 대한 서사적 관습이 <설공찬전>을 둘러싼 필화사건을 계기로 약화되기 시작했고, 귀신을 통해 발휘되던 脫儒家的 지향도 현저히 약화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²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설공찬전> 이후 신이한 요소라든가 초현실계의 설정이 서사문학의 지평에서 완전히 否定되거나 驅逐되었던 것은 아니다. 16세기에 산출된 필기·패설집을 보면 여전히 신이사가 발견될 뿐만 아니라 천상계는 서사적 관습으로 정착될 만큼 빈번하게 설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허탄한 이야기를 창작·유포했다는 이유로 사형까지 거론되던 채수의 주변 사람조차 그에 대한 관심을 접지 않았다. 현실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神異事와 그를 가능케 하는 超現實界는, 애써 외면하거나 쉽게 부정할 수 없는 미혹의 사안이었던 것이다.

장인 襄靖公[蔡壽: 필자 주]이 어릴 적에 아버지를 따라 경산에 있을 때였다. 두 아우와 관사에서 누워 자다가 갑자기 번이 마려워서 옷을 입고 방 밖으로 나가보니, 흰 기운이 火圓鏡[확대경]과 같이 오색찬란하게 공중에서 수레바퀴처럼 돌아 먼 곳에서 차차 가까워오는 데 마치 바람과 번개 같았다. 양정공이 놀라 바빠 방으로 들어와 막 문턱을 넘어서는데, 그것도 방안으로 따라 들어오는 것이었다. 조금 있다가 막내 동생이 방구석에서 자다가 놀라 일어나 뛰며 아프다고 부르짖으며 입과 코에서 피를 흘리며 죽었다. 그러나 양정공은 조금도 상한 데가 없었다. 대저 邪氣가 사람을 상하게 할 때, 그 虛함을 타서 하니 사람의 기운이 완전하면 해치지 못하는 것이다.²¹⁾

20) 이와 관련된 좀더 자세한 논의는 조현선, 「조선 전기 귀신이야기에 나타난 神異 인식의 의미」, 『고전문화연구』 제23집, 한국고전문화학회, 2003. 6을 참조할 것.

21) 김안로, 『용천담적기』, 『국역 대동야승』 권13, 『난재선생문집』 권4에 실려 있는 <연보>에도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채수의 사위였던 김안로의 전언이다. 채수가 젊은 시절에 겪은 이런 神異體驗은, 만년까지 현실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세계’에 대한 의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만들었던 듯하다. 위진남북조 시대 干寶가 자신의 부친을 모시던 侍婢를 무덤에 함께 묻었건만 19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있는 神異를 목격한 뒤, 『搜神記』를 통해 현실세계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세계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평생 노력했던 것처럼 말이다. 채수 역시 겉으로는 귀신이란 음양의 작용일 뿐이라며 確論을 펼친 바 있지만,²²⁾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근원적인 의혹까지 없앨 수는 없었다. 그 젊은 시절의 의혹이 늙도록 이어져, 결국 <설공찬전>을 창작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²³⁾ 하긴, 초현실계는 채수 한 사람만이 아니라 15-16세기를 살았던 선인은 물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여전히 未知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그래서 ‘귀신담론’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끊임없이 끌어들이는 영원한 테마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일 터다.

② 그렇다면 예나 지금이나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많은 사람이 호기심어린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神異體驗을 다룬 <설공찬전>을 두고 왜 그토록 과격한 논의가 오갔던 것일까? 답은 이미 여러 차례 주어져 있다. 유교이념에 배치되는 윤회화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랬다. 고위층 인사의 창작물이 민중에게 주는 영향력이 막대했기 때문에 그랬다. 왕권모독과 풍기문란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²⁴⁾ 모두 맞는 답일 수 있다. 하지만 신이체험은 필기·패설집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것은 문제가 안 되고, <설공찬전>만 유독 문제가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래서 <설공찬전>이란 작품 자체보다 中宗反正을 전후한 채수의 훈구과적 정치 행보에 대한 사림파의 비판이 작동한 것이라는 설명, 또는 성리학적 이념으로 무장된 16세기 초반의 경직된 분위기가 초래한 해프닝이라는 설명이 설득력을 지니기도 한다. 그럴

22) 채수, 「問鬼神巫覡卜筮談命地理風水」, “鬼神者, 陰陽之所以行也.”

23) 이복규, 『설공찬전 연구』, 박이정, 2003, 83쪽.

24) 이복규, 앞의 책, 34~37쪽.

수도 있겠다. 하지만, 보다 바람직한 자세는 작품 자체의 꼼꼼한 분석을 통해 해답을 찾아보려는 태도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별반 이루어진 적이 없다. 물론 작품 전편이 온전하게 남아 있지 않아 분석의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남아 있는 내용과 당대인의 증언을 연관 지어 보면, 왜 그토록 문제가 되었는지 작품 내부에서 그 까닭을 짐작해 볼 수는 있다.

채수는 종종 초에 <설공찬환혼전>을 지었는데, 내용이 매우 괴이하였다. 말미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설공찬은 타인의 몸을 빌려 몇 개월 머무르면서 자기의 원망과 저승의 일들을 매우 자세하게 말하였다. 이제 그 말과 글을 그대로 따라서 기록하고 한 글자도 바꾸지 않은 것은 그대로 전하여 믿게 하고자 함이다.” 언관이 그것을 보고 “채수는 황탄하고 불경한 책을 지어 사람들을 현혹시키니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라고 논박하였으나 임금울 이를 윤허하지 않고 그 직책을 파면하였다.²⁵⁾

조정에서는 <설공찬전>이 황탄하고 불경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현혹시켰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그 가운데 좀더 무게 중심이 놓이는 것은 후자였다. 황탄하고 불경한 이야기야 <설공찬전> 이외에도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채수를 변호하던 훈구파의 인사들이, 그렇다면 『태평광기』·『전통신화』를 지은 자들도 모두 죽여야 하느냐고 변호하고 나섰던 것이다. 사실 <설공찬전>이 자신들만의 독서물로 유통되는 데 그치고 말았다면, 그토록 문제되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렇지 않고 언문으로 번역되어 못사람을 현혹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과격한 논의가 오고갔던 것이다.²⁶⁾

25) 어숙권, 『패관잡기』, 180쪽.

26) 내용 자체보다 그것의 급속한 확산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은 <설공찬전>과 관련된 자료 대부분에서 발견된다. 다음의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도 그러하다. “인천군 채수를 파직하라고 명하시니, 그가 지은 <설공찬전>이 괴이하고 허탄한 말을 꾸미서 문자로 나타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하게 했기 때문이다. 올바르게 않은 도로 正道를 어지럽히고, 백성을 선동하고 미혹하게 한 죄로 사헌부에서 교수해야 한다고 아뢰었으나, 다만 파직만을 명하신 것이

하지만 궁금한 것은,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설공찬전>에 빠져 들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럼에도 그간 이에 대한 질문은 별반 없었다. 허탄한 이야기를 짓고, 그것이 번역되어 널리 읽히고, 그래서 조정에서 논란이 있었다는 작품 외적 사실에만 대부분 주목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京鄕의 男女老少가 한문/국문으로 옮겨가면서 열독하게 만든 작품 내적 요인은 무엇인가를 반드시 물었어야만 했다. 그 어름에서 <설공찬전>의 서사미학적 성취를 확인할 수 있겠기 때문이다. 그때, 우리는 현재 망실되고 없지만 작품 말미에 채수가 적어놓았다는 구절, 곧 “이제 그 말과 글을 그대로 따라서 기록하되 한 글자도 바꾸지 않은 것은 그대로 전하여 믿게 하고자 함이다.(今一從所言及所書書之, 不易一字者, 欲其傳信耳.)”라는 창작 태도에 주목하게 된다. 적어도 채수는 자기 자신이 전하는 내용이 재미삼아 읽어 넘기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랐던 듯하다. 그래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한 글자도 바꾸지 않았던 것이다. <설공찬전>이 필기·패설류에서 종종 다루던 신이담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관심을 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실로 믿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쫓진하게 그려진 장면 장면에 있었던 것이다. 다음의 장면 하나를 읽어보도록 하자.

심부름 간 사람이 와서 그 말을 많이 이르자, 공찬의 녀이 듣고 크게 노하여 이르기를, “이렇듯이 나를 따라오시면 숙부님의 형용을 변화시키겠습니다.”하고, 공침의 사지를 비틀고 눈을 찢으니 눈자위가 찢어지고, 또 혀도 파서 빼어내니, (빼어낸 혀가) 코 위에도 올라가며 귀의 뒷부분가지도 나갔는데, 늙은 종이 곁에서 병구완을 하다가 깨니, 그 종도 까무러쳤다가 오래 되어서야 깨어났다. 공침의 아버지가 몹시 두려워 뉘를 잃고 다시 공찬이를 향하여 빌기를, “석산을 다시는 부르지 않으마.”하고 매우 비니, 오래 되어서야 형상이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왔다.²⁷⁾

퇴마사 김석산을 부르려 하자 설공찬의 녀이 설공침의 형상을 기괴

다.”(중종 6년 9월 18일)

27) 채수, <설공찬전>, 29쪽(인용 쪽수는 이복규, 앞의 책을 가리킴).

하게 변형시켜 김석산의 초빙을 저지하는 대목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채수가 작품 말미에서 밝힌 창작 태도가 빈말이 아니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이보다 충격적인 장면이 없을 정도로 채수는 憑依의 순간을 생생하게 포착·기록했던 것이다. 게다가 순창이란 실제의 지명, 정덕 무진년 7월 27일 해질 무렵이라는 정확한 시간, 설총란·설총수·설공침이라든가 설휘와 같은 설공찬의 친인척과 주전충·민휘와 같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 그리고 복숭아 나뭇가지라든가 원새끼를 꼬아서 귀신을 쫓아내던 민간의 풍속 등은 작품의 사실감을 높여주고 있다. <설공찬전>이 다른 신이담보다 관심을 끌었던 것은, 사람이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는 사후세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다. 귀신의 육체적 점유라는 믿어지지 않은 현상, 좀처럼 제어되지 않는 귀신세계의 존재를 생동한 서사로 그려내어 인간 내면의 불안감과 호기심을 민감하게 자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설공찬전>이 이룩하고 있는 서사미학의 일단을 간취하게 된다. 사실과 허구로 交織해 낸 서사적 뒤틀림성이 그것이다. <설공찬전>은 15세기 훈구파 문인의 문예취향이던 필기·패설류에서 강조하던 事實과 記錄의 태도를 충실히 이어받고 있는 동시에 지괴·전기류에서 발전시킨 虛構와 追眞의 성취를 아우르고 있었던 것이다.

㉓ 여기서 우리는 다시 김안로가 장인 채수의 신이 체험을 소개하면서 밝힌 견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는 귀신의 세계를 인정할 수 밖에 없지만, 그것이 인간의 삶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기운이 허한 경우에 한해서라고 못 박아 둔 바 있다. 귀신의 존재를 인간의 질서로 편입시켜 놓고,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했던 단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그런 귀신 세계의 이해 방식은 <설공찬전>에서도 적용된다. 설공찬의 녀이 사촌 동생 설공침의 육체를 점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하여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된 것도 그런 까닭이었다. 기운이 허해서 귀신이 침범해 죽은 채수 자신의 동생처럼, 설공침 역시 “젊었을 때부터 글을 힘써 배우되, 동생의 반만도 못하고 글쓰기도 그만 못하”²⁸⁾던 부족한 위인이었다. 그렇다면 <설공찬전>을 두고 그토록 과민하게 반응했던 上林은, 자신도 설공침처럼 허약한 존재일지 모른다

는 불안에 떨었던 게 아닐까?

하루는 공찬이가 편지를 보내 사촌 동생 설원이와 윤자신이 이 둘을 함께 불렀다. 두 사람이 함께 와 보니, 당시에는 공찬의 녀이 오지 않은 때였다. 공침이 그 사람들더러 이르기를, “나는 병들어 죽을 것이다.” 하고 이윽고 고개가 (쑥) 빠져 눈물을 흘리고 베개에 누웠는데, 보니 그 영혼이 당시에는 미처 오지 않고 있었다. 이윽고 공침의 말이 아주 애절하거늘, 제 아버지가 이르기를 “영혼이 또 온다.” 라고 하였다. 공침이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 앉아 머리를 굽고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기를 “내 너희와 이별한 지 다섯 해인데, 멀리 (저승까지) 쫓겨났으니 매우 슬픈 뜻이 있다.”라고 하였다.²⁹⁾

<설공찬전>이란 작품을 읽을 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장면은 어디일까? 아무래도 귀신이라든가 저승의 존재에 대한 상세한 전언도 전언이거니와 한 사람의 몸에서 울려 나오는 두 사람의 목소리였을 것이다. 위의 인용문이 그 점을 잘 보여준다. 설공침과 설공찬이라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수시로 바뀌가며 한 몸에서 울려 나오는 광경이란 참으로 끔찍하다. 그리고 그런 분열된 목소리가 자기 내부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불안에 휩싸이게 된다면, 그런 문제를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 작품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³⁰⁾ 16세기라는 시대는 아직 성리학적 이념으로 완벽하게 무장되지 않은 시대였다. 그러나 그런 불완전함을 채우기 위해, 또는 감추기 위해 놀라운 정도로 혹독하게 자기 자신은 물론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도덕적 엄정함으로 다그치던 시대였다. 그렇게 본다면, 채수에 대한 가혹한 비난은 그런 불완전한 분열을 방치하거나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자기 다짐이었을 지도 모른다. 물론 그런 불안함과 그런 근엄함이 팽팽하게 갈등하던 불편한 同棲의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얼마

28) 채수, <설공찬전> 27쪽.

29) 채수, <설공찬전> 29~30쪽.

30) 김수연, 「흥미와 교화가 만나는 지점」, 동국대 대학원 ‘고소설자료강독’ 수업 발표요지, 2004.9.17, 5쪽.

지나지 않아 둘은 서로 결별했고, 결국 견문을 통해 개인사를 재구하던 16세기 인물서사는 이전 시기 필기·패설의 '사실성'을 골간으로 삼되 허구적 서사가 단련시킨 '뒹진성'의 儼場 속으로 급속하게 빨려 들어갔던 것이다.³¹⁾

나. 傳奇小說: 전기적 서사문법의 계승과 변주

㉠ 나말여초 『수이전』, 15세기 『금오신화』, 그리고 17세기 『운영전』 등으로 이어지는 전기소설사의 맥락에서 16세기는 그리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전기소설이 창작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신광한의 『기재기이』라든가 권필의 『주생전』 등이 바로 16세기에 지어졌다. 그럼에도 16세기를 주목하지 않는 까닭은, 15세기는 물론 17세기에 비해 작품의 수준이 낮다는 통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기이』는 『금오신화』에 비해 서사적 긴장이라든가 미적 성취도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그런 통념을 대변한다. 그래서 1593년 지어진 『주생전』조차 '굳이' 17세기 전기소설사에 편입시킬 정도였으니, 16세기 전기소설사에 대한 환대를 짐작할 만하다.

하지만 고전소설사에서 16세기가 차지하는 위치가 ऐसा 少지 않은은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제 널리 알려진 자료지만, 「閭巷의 무식쟁이들이 諺字를 배워 古老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배껴 밥맛 떠들고 있는데, 李石端·翫翫의 이야기 같은 것은 음탕하고 허탄하여 보기에 부족하다」³²⁾던 낙서거사의 증언은 그런 차원에서 거듭거듭 음미할 만하다. 16세기에 이미 중국의 장편소설과 단편소설, 문언소설과 백화소설 등

31) 우리는 그런 흐름의 단편을 <최고운전>이라든가 <최척전>에서 발견하게 된다. 거기에는 유가적 세계관을 비롯하여 다종다양한 세계관이 총집결되면서, 역사적 인물인 최치원과 최척은 허구적 인물로 변모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전 시기보다 훨씬 환상적이면서도 훨씬 그럴 듯한 뒹진성을 구가하고 있다. <최고운전>이 그토록 많은 이본, 특히 국문-한문으로 표기문자를 전환해 가며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것이나 <최척전>이 17세기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평가받는 것도 이런 서사미학의 성취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정출현, 「최고운전을 통해 읽는 초기 고전소설사의 한 국면」, 『고소설연구』 제14집, 한국고소설학회, 2002. 12를 참조할 것.

32) 洛西居士, <五倫全傳 序>, “余觀閭巷無識之人, 習傳諺字, 臆其古老相傳之語, 日夜談論, 如李石端翫翫之說, 淫褻妄誕, 固不足取觀”

이 대거 유입되어 읽혔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정서에 맞게 변안·개작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다. 『기재기이』처럼 문인사대부의 정련된 서사미학을 계승하고 있는 전기소설이 창작되었는가 하면, <최고운전>처럼 상층-하층의 서사가 결합하여 투박한 서사미학을 구축하고 있는 전기소설도 창작되고 있었다. 16세기는 15세기와 17세기를 이어주는 교량적 역할로만 한정할 수 없을 만큼, 활기찬 소설사의 시대를 구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필사본으로만 떠돌던 『금오신화』, 『기재기이』, 『전등신화』와 같은 전기소설이 16세기 중반 국가 출판기관인 校書館에서 목판으로 잇달아 발간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剪燈新話句解』의 경우는 1549년에는 목활자로, 1559년에는 목판으로, 그리고 1564년에는 乙亥字로 세 차례나 발간될 정도였다. 그 ‘하찮은’ 소설을 국가기관에서 공간했다는 데서, 소설에 대한 열기가 어떠했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어떤 근엄한 선비는 그런 사실을 통렬하게 꾸짖기도 했지만, 그런 개탄이야말로 소설에 대한 당대인들의 애호를 억제하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전등신화』는 저속하고 외설스러워 입이 딱 벌어질 정도의 책인데도 校書館이 사사로이 재료를 주어서 판각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識者들이 모두 이를 뼈아프게 원망하여 그 판본을 없애려고 한 자도 생겼으나 그럭저럭 지금까지 놔두고 있습니다. 향간에서 앞 다투어 서로 印出하여 보고 있는데, 거기에는 남녀간 음란한 짓거리와 神怪하고 不經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³³⁾

물론 소설의 발간이 尹春年을 비롯한 몇몇 개인의 후원에 의해 중앙의 校書館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낙서거사 이항이 번안한 <오륜전전>이 1550년 충청도 충주 관아에서 縣監 柳仲郢에 의해서 발간된 것은 물론 명나라 陶輔(1441~?)가 지은 文言小說集 『花影集』이 1586년 경상도 昆陽에서 군수 尹景禧에 의해 발간되기도 했다. 바

33) 『선조실록』, 선조 2년 6월 20일(임진).

야호로 고전소설은 본격적인 독서물로 자리를 잡아갔고, 폭발적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중앙 정부나 지방 관아를 막론하고 공공연히 발간·유통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16세기 전기소설사의 지평을 되짚어보아야 한다. 특히 작품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기재기이』를 대상으로 삼아 기존의 전기소설 전통을 계승한 지점과 새롭게 변주한 지점을 분별해가면서, 16세기 전기소설이 성취한 미학적 특질 및 수준을 가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㉔ 신광한(1484~1555)의 『기재기이』는 16세기 전기소설의 판도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안방몽유록>, <서재야회록>, <최생우진기>, <하생기우전>으로 이루어진 이들은 몽유, 가전, 전기 등 다채로운 서사기법을 활용하여 작품집을 꾸미고 있다. 뿐만 아니라 ‘○○錄’, ‘○○記’, ‘○○傳’ 등 다양한 산문양식으로 제목을 삼고 있다. 서사기법의 다채로움이는 산문양식의 다양함이든 이들 모두는 『전등신화』와 『금오신화』에서 이미 실험했던 것이기도 하다. 『기재기이』는 멀리는 『전등신화』, 가깝게는 『금오신화』의 전례를 충분히 이어받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최생우진기>에게서 <용궁부연록>의 영향을, <하생기우전>에서 <만복사저포기>의 영향을 읽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을 비교하는 것은, 단순히 두 작품의 차이만이 아니라 그것을 산생시킨 시대의 차이를 읽어내는 데도 유용한 작업이 될 수 있다. 본격적인 비교를 위한 예비 작업으로, 두 작품에 대해 남긴 당대인의 감상을 비교해 보자.

金鰲居士傳新話
白月寒梅宛在茲
暫借河西搢病目
頭風從此快痊之³⁴⁾
文章事業古人如

금오거사 『신화』를 세상에 전했어라
하얀 달 찬 매화가 완연히 여기 있네.
잠시 빌려와 침침한 눈 씻고 읽어보니
두풍이 이로 인해 거뜰히 나았구나.
문장과 공적이 고인과 같더니

34) 金麟厚, <借金鰲新話於元禮>, 무악고소설자료연구회 편, 『한국고소설관련자료집 1』, 태학사, 2001, 246쪽.

隅一編成未見書
啜罷茶甌仍數遍
松齋春日午眠餘³⁵⁾

한 모퉁이 들 듯 엮어 못 보던 책 이루었네.
차를 마시고 여러 번 읽노라니
소나무 서재에서 봄날 낮잠 자고난 듯.

김인후와 박계현의 독후감이다. 다른 사람의 감상을 비교하여, 두 작품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논단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지만 두 작품이 지니고 있는 작품의 情調를 감지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다. 김인후가 『금오신화』에서 흰 눈 속에 핀 매화를 비추고 있는 싸늘한 달빛을 특기하고 있다면, 박계현은 『기재기이』에서 한낮의 봄꿈처럼 몽롱하면서도 화락한 기분을 특기하고 있다. 김인후와 박계현의 이런 소감은 지금 우리들의 감상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금오신화』는 현실에서 소외된 지식인의 고독한 내면세계를 질게 드리우고 있다는 게 정론이다. 그런 정감은 나말여초 <최치원>에서부터 발견되고 있는바, 김시습이라는 개인이 처한 고독한 상황만 가지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애정 전기소설이 오랫동안 구축해온 장르적 속성 또는 포즈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재기이』는 이런 전기소설의 서사 문법이나 전통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 은근하면서도 향기로운 차의 향기처럼, 그것들은 아름답게 펼쳐진 한 편의 파노라마에 가까웠다. 작품의 그런 특징은 신광한의 제자이면서 『기재기이』를 출간한 당사자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기이』 한 질은 지금의 贊成事 企齋 相公께서 지은 것이다. 상공께서 일찍이 장난삼아 쓴 것으로, 기이하게 할 뜻이 없었는데 절로 기이하게 되었다. 그 지극함에 이르러서는 사람을 기쁘게도 하고, 사람을 놀라게도 하며, 세상에 모범이 될 만한 것도 있고, 세상을 경계시킬 만한 것도 있다. 그리하여 백성의 도리를 붙들어 세워 명교에 보탬이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저 평범한 소설들과 같이 말할 수가 없으니, 세상에 성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사본은 잘못된 것을 그대로 전승하였기 때문에 호사자들이 병으로 여겼다.³⁶⁾

35) 朴啓賢, <題企齋記異卷後>, 무악고소설자료연구회 편, 같은 책, 247쪽.

36) 申澣, <企齋記異 跋文>, “記異一帙, 則今贊成事企齋相公所著也. 嘗遊戲翰墨, 無

이들의 증언에 근거하면, 『기재기이』는 『금오신화』의 미적 특질로 꼽는 진지함, 고독감, 비극적 정조와는 거리가 멀다. 대신 장난삼아 썼다는 것, 저절로 기이한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 그리하여 사람들을 기쁘게도 하고 놀랍게도 만든다는 것을 강조한다. 玉堂의 꿈을 접은 천재 문사 김시습이 고독한 산사에서 심혈을 기울여 쓴, 그러나 자신의 그런 심사를 인정하는 사람 없어 右室에 감춰 두고 뒷사람을 기약했다는 전언이 만들어질 만큼 진지하게 짓고 진지하게 읽히던 『금오신화』와는 다른 면모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그런 차이를 진정보다 흥미를 보다 중요하게 여기게 된 소설사적 지평의 전환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물론 『기재기이』의 이런 성격을 신숙주의 손자이자 이조판서·대제학·좌찬성을 역임했던 신광한의 영예로운 삶과 그로부터 배태된 넉넉한 세계관과 무관할 수 없다.³⁷⁾ 그럼에도 굳이 소설사의 지평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것은, 『기재기이』에서 강조되던 사람을 기쁘거나 놀라게 만든다는 면모가 전기소설의 통속화 경향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세상에 모범”, “세상을 경계” 하기도 한다면서 칭찬하더니만, 급기야 名敎에 보탬이 되니 ‘평범한 소설’과는 함께 논할 수 없다고 강조하는 것이야말로 통속화 경향의 숨길 수 없는 징표이다. 흥미를 추구하면서도 교훈의 효용을 표방하는 것이야말로, 통속소설의 전형적인 수법인 것이다.

바로 그런 면모가 고전소설사에서 차지하는 『기재기이』의 중요성이다. ‘勸善懲惡의 서사구조’ 또는 ‘행복한 결말’이라는 고전소설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우리의 첫 작품이 바로 『기재기이』였던 것이다. 사

意於奇, 而自不能不奇. 及其至也, 使人喜, 使人愕, 有可以範世, 有可以驚世, 其所以扶樹民彝, 有功於名敎者, 不一而足. 彼尋常小說, 不同年以語, 則盛行於世, 固也. 第寫本承訛, 好事者, 病焉.”

- 37) 『기재기이』에 대한 작품세계를 작가론적 차원에서 설명하려는 경우, 크게 두 가지 견해가 맞서고 있다. 하나는 훈구계 후예로서 넉넉한 삶의 태도가 자아와 세계 사이의 긴장감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기묘사화 이후 削職되어 元후리로 물러가 있는 동안 지어 비판적인 의식을 寓意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다 본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하겠지만, 전자의 시각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실, 우리나라 전기소설에서 권선징악이라든가 행복한 결말이란 서사구조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전등신화』의 영향을 듬뿍 받고 그것의 교화적 의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던 김시습조차 이를 일체 받아들이지 않았다.³⁸⁾ 세상에서 소외된 자의 ‘고독’과 세상을 외면한 자의 ‘자부’를 섬세하게 엮어내는 데 보다 열중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 시대적 상황 역시 작용한 바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명나라의 『전등신화』는 대중적 문예의 성황을 배경으로 성립한 전기소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권선징악의 서사구조를 자연스럽게 채택·활용했던 반면, 조선은 아직 그런 단계에 들어서지 못 했다. 그런 까닭에 김시습을 비롯한 사대부 문인들은 대중적·통속적인 소설의 서사문법과 미적 특질을 받아들이는 대신 작가 내면의 정신적 지향을 순수하게 표현하는 데 집중했던 것이다.³⁹⁾ 그런 맥락에서 파악할 때, 『기재기이』는 16세기 전기소설은 물론 서사문학 전반이 본격적인 대중 문예물로 자리잡아가고 있던 상황을 암시하는 흥미로운 작품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③ 그렇게 보면 16세기를 주목하게 만드는 두 국면, 곧 전기소설집의 잇따른 발간과 전기소설의 대중화 경향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었던 것이다. 전기소설은 몇몇 문인 사대부를 대상으로 창작·감상되는 단계로부터 벗어나 보다 두터운 계층을 대상으로 산출·유통되는 단계로 진입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최고운전>은 말할 것도 없고 <주생전>·<위경천전>·<운영전>과 같은 정련된 전기소설조차 한문/국문으로 표기문자를 바꿔가며 향유된 것도 그런 추세를 반영하는 사례이다. 그렇다면 전기소설사의 새로운 단계를 보여주고 있던 『기재기이』가 추구한 서사미학은 무엇인가? 앞서 우리는 이 작품에서 세태를 경

38) 김시습은 <題剪燈新話後>에서 “말이 教化에 관련되면 괴이해도 해되지 않고, 일이 사람을 感動시키면 허탄해도 기뻐할 만하다”면서 『전등신화』의 교화적 측면을 적극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그 자신 『금오신화』를 창작하면서도 이런 교화적 지향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다.

39) 임형택, 『花影集』을 통해 본 16·7세기 한중소설사: 권선징악의 서사구조, 『제227차 정례학술발표회 자료집』, 한국고전문학회, 2003, 58쪽.

계하려는 창작 의도라든가 권선징악적인 서사 구조에 유념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를 뚜렷하게 실감하기란 힘들다. 이런 조짐이 작품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을 뿐,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서사 문법으로 아직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했던 것이다. 꽃밭에서의 한바탕 꿈을 꾸고 난 뒤 “이런 일이 있는 뒤로는 오직 글만 읽고 다시는 정원에 눈을 돌리지 않았다.”는 <안병몽유록>의 상투적인 결말, 오랫동안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친 대가로 옥황상제가 자식 다섯과 딸 하나를 요절시켰다는 <하생기우전>의 단편적인 모티프에서 그런 조짐을 어렵듯이 감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보다 세밀한 대목에서 『기재기이』의 새로운 면모를 점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논의 대상을 좁힐 필요가 있다. 『기재기이』 가운데 전기소설의 관습을 가장 온전하게 이어받고 있는 <하생기우전>을 통해 16세기 전기소설이 도달한 서사미학의 수준을 가늠해 보기로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 작품 하면, 으레 해피엔딩이라는 새로운 결말 방식을 떠올린다. 게다가 무덤을 파보니 삼일 전에 묻은 여인이 아직 살아있더라는 삽화는 웬지 모르게 친숙한 느낌을 준다. 아닌 게 아니라 『수이전』에 실려 있는 <首插石柙>에서 접했던 적이 있었다. 거기서도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람이 되살아나 사랑하던 사람과 평생 해로하는 것으로 작품을 끝맺고 있지 않았던가? 사실, <하생기우전>은 이런 대목뿐만 아니라 인물의 선징, 사건의 전개 등도 어디선가 본 듯한 대목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건, 바로 <만복사저포기>에서였다. 짝이 없이 외로워하던 남주인공, 자신의 운명을 예시하는 초월적 존재, 죽은 여인과의 은밀한 하룻밤, 그리고 그런 사실을 증명하는 부장물, 등등. 두 작품은 이렇듯 서로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었던 것인데, 그 중 가장 인상적인 한 대목을 참고삼아 읽어보자.

[1] 얼마쯤 지나서 여자가 건장한 노복 몇 명을 데리고 와서 是 何生을 결박하고 말하기를, “이것[金尺]은 작은 아씨 무덤에 殉葬했던 물건이다. 그대는 묘도둑이로구나!” 하였다.⁴⁰⁾

40) 신광한, <하생기우전>, 박희명, 『韓國漢文小說 校合句解』, 소명출판, 2005, 212쪽.

[2] 길가에 어떤 서생이 주발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고, 하인이 말하기를 “아가씨 무덤에 묻은 殉葬物을 벌써 다른 사람이 훔쳐갔습니다!” 하였다.⁴¹⁾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생기우전>은 <수삼석남>·<만복사저포기>와 같은 전기소설의 영향을 이어받아 인물의 설정, 사건의 설정, 작품의 결말 등 인상적인 장면 장면을 빌려다가 새로운 한 편을 만들었던 것이다. 기실, 조선전기에 이미 『태평광기』·『전등신화』·『전등여화』 등 중국의 우량한 지괴·전기소설들은 우리 소설계에 대거 유입되어 읽히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새로울 것도 없는 전기소설을 굳이 창작한 까닭은 무엇일까? 그건, 전기소설에서 자주 사용하던 서사문법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때론 약간 새롭게, 때론 약간 낮설게 바뀌가면서 새로움을 창출했던 것이다. 그리고 전기소설에 익숙하던 당대의 문인 사대부들은 그런 계승과 변주의 경계에서 독특한 흥미를 만끽했던 것이다.

당대 독자들이 『금오신화』를 읽고 감상할 때 늘 『전등신화』를 거론했던 것도, 그런 방식의 독서 체험을 토로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가 『기재기이』의 몇 대목을 <수삼석남>·<만복사저포기>와 견주었던 것도 그런 방식의 서사 문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작품 분석은 별도의 작업으로 미뤄둘 수밖에 없지만, 인물의 뒤바뀔만은 지적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수삼석남>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인물이 남주인공 崔伉으로서, 여주인공의 절실한 사랑에 의해 그런 기적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남주인공 하씨의 사랑과 도움에 의해 여주인공이 살아나는 것으로 바뀌었다. 남성이 소설의 주역으로, 또는 역사의 주역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상황의 반증일 수 있겠다. 그리고 보면 <하생기우전>의 남주인공이 何氏로 설정되어 있는데, 혹여 <만복사저포기>의 여주인공이 何氏라서 그렇게 붙였는지도 모르겠다. 穿鑿에 가깝겠지만, 전기소설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이렇듯 기존의 전기소설에 대한 풍부한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41) 김시습, <만복사저포기>, 박희병, 같은 책, 110쪽.

그것들이 국면국면 어떻게 계승·변주되고 있는가를 읽어낼 수 있어야만 한다. 전기소설의 서사미학은 관습과 일탈, 그 둘의 어름에서 미묘하게 펼쳐지는 변주 방식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전기소설의 이런 창작 기법은 전근대 동아시아 문예 창작에서 각별한 중요성을 갖는 것이었다. 요즘 말로 바꿔 말해 혼성모방 또는 패러디라 할 수 있겠는데, 한시는 말할 것도 없고 전기소설에서도 빈번하게 구사되던 주요한 서사미학의 특징이었던 것이다.⁴²⁾

다. 敍事寓言: 사대부의 욕망을 담은 寓意와 公論

Ⅰ 16세기 서사문학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창작된 갈래는, 사대부 내면의 사회·정치적 욕망을 은밀하게 담아내고 우언이었을 것이다. 우언은 擬人, 夢遊, 假託 등 다채로운 방법을 통해 지배담론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그 존립 근거를 교란시키기도 했다. <서재야회록>·<천군전>·<수성지>·<화사>와 같은 작품은 의인의 수법을 통해서, <안빙몽유록>·<대관재기봉>·<급생이분록>·<원생몽유록>과 같은 작품은 몽유의 형식을 통해서 지배 담론에 시비를 건다거나 자신이 지니고 있던 욕망을 공론의 장에 올려놓았던 것이다. 이들 가운데 <천군전>·<원생몽유록>·<급생이분록>과 같은 서사우언은 이들의 서사미학을 살피려는 우리에게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한다. 이들은 <神明舍圖>라는 그림을, 또는 <六臣傳>·<善誌>라는 傳記라든가 畵誌를 서사 형식으로 풀어내고 있다. 때문에 底本과의 비교를 통해 이들의 서사미학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가운데 본고에서는 <원생몽유록>을 대상으로 이런 작업을 시도해 보도록 한다. <원생몽유록>은 16세기 서사우언 가운데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작품이다. 그런 까닭에 더 이상 논의할 게 없을 정도로 자명한 작품처럼 보인다. 작품 어디에도 등장하는 인물이 단종과 그의 복위를 도모했던 사육신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누구나 단종과 사육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안다. 단종의 죽음과 사육신의 충절을

42) 전기소설의 이런 창작방법과 문예미학을 검토한 대표적인 성과로는 정민, 「주생전의 창작기층과 작품성격」, 『목룡문단과 서주 권필』, 태학사, 1999가 있다.

추모하기 위해, 또는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기 위해 창작된 작품인 것이다. 이렇듯 자명한 까닭에 작품을 둘러싼 연구는 거의 대부분 작자 문제로 집중된다. 현재 林梯가 창작했다는 견해와 元昊가 창작했다는 견해가 맞서 있다. 원호 창작설도 나름대로 근거를 갖추고 있지만, 아무래도 임제가 창작한 것으로 보아야 옳을 듯하다.⁴³⁾

물론 누가 창작한 것인가에 따라 작품의 의미 및 주제조차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종과 사육신을 거론한다는 것은, 당대에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김종직이 지은 <弔義帝文>을 참고해도 좋을 것이다. 이 글은 수많은 士林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戊午土禍(1498년)의 발단이 되기도 했다. 꿈에 項羽에게 죽임을 당한 義帝를 보고, 그를 조문하기 위해 쓴 글이라지만 세조의 왕위찬탈에 대한 寓意로 지목되어 환란을

43) <원생몽유록>의 작자에 대한 논란은 실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논란의 원인은 현전 문헌의 기록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원생몽유록>의 이본 가운데 작자를 임제로 밝혀 놓은 것도 있고, 원호로 밝혀놓은 것도 있다. 뿐만 아니라 海月居士로 적고 있는 것도 있고, 梅月居士로 적고 있는 것도 있다. 어떤 것은 ‘梅月居士 金時習’이라 적어놓기도 했고, 어떤 것은 ‘戊辰仲秋 梅月居士 志 林白湖悌所記’라 적어놓기도 했다. 사정은 그뿐 아니다. 임제의 문집 『白湖集』에도 실려 있고, 원호의 문집 『觀瀾遺稿』에도 실려 있고, 黃汝一의 문집 『海月文集』에도 실려 있고, 남효온의 문집 『秋江集』에도 실려 있다. 그런 <원생몽유록>은 1691년 사육신의 복판, 1698년 단종의 복위, 1703년 숙종의 御覽을 거쳐 1711년 왕명으로 간행된 『莊陵誌』에 부록으로 실린다. 아니, 현종 4년(1663년) 간행된 『魯陵誌』에도 이미 수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생몽유록>이 수록된 문집은 모두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의 일이다. <원생몽유록>을 지었다는 것이 두렵기는커녕 자랑스럽기 그지없는 일이었을 때 수록되었던 것이다. 작품과 관련된 후손들은 서로 자기 선조가 창작했다고 주장하고, 그럴 듯한 근거까지 마련해 두고 있으니 작자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제를 작자로 보는 까닭은, 양승민의 지적처럼 임제 창작설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의 실증적 허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할 만한 결정적 자료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그리고 원호 창작설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경우 임제 창작설보다 허점이 많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단종과 사육신 등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적 거리를 두고 씌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그 외, 임제가 창작했을 개연성에 대해서는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밝히기로 하겠다. <원생몽유록>의 작자 문제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우쾌재 편, 『원생몽유록 -작자 문제의 시비와 의혹』, 박이정, 2002를 참조할 것.

불러왔던 것이다. 김종직의 그런 정신적 계보는 金剛孫으로 이어져서 史草에 “김종직이 <조의제문>을 지어 忠憤을 은연 중 드러내었다.”라 기록하게 했고, 南孝溫은 사육신을 기리는 『六臣傳』을 짓도록 만들었다. 이들 모두 세조의 왕위찬탈을 비판하고 사육신의 충절을 기리는 데 있어 한 뜻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조의제문>과 그토록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육신전』은 어떤 책이었는지, 그리고 그 파장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상이 경연에 나아갔다. 판서 朴啓賢이 입시하였다. 이어 아뢰기를 “성삼문은 참으로 충신입니다. <육신전>은 곧 남효온이 지은 것이니 상께서 가져다가 보시면 그 상세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하니, 즉시 <육신전>을 가져오게 하여 보고는 크게 놀라 하교하기를, “영터리 같은 말을 많이 써서 先祖를 모욕하였으니, 나는 앞으로 모두 찾아내어 불태우겠다. 그리고 그 책에 대해 말하는 자의 죄도 다스리겠다.” 하였다.⁴⁴⁾

박계현(1524~1590)이 經筵에서 『육신전』을 읽어보라고 권한 것은, 선조 9년(1576)이었다. 사육신이 단종의 복위를 도모하다 죽은 지 100년이 훨씬 지났건만, 여전히 『육신전』은 불태워져야 마땅하고 들먹이는 자들까지 처벌해야 한다면 불온한 책이었다. <원생몽유록>이 지어진 것도 대략 그 무렵이었으리라 추정된다. 추정의 근거는 이러하다. 임제(1540~1603)는 위의 사건이 있기 1년 전인 선조 8년, 왜구의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 호남지방에 내려온 박계현의 막하에서 布衣로 종군하게 된다. 이후, 두 사람은 忘年知己로서 시문을 주고받으며 강개한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했다.⁴⁵⁾ 그렇다면 한 사람은 『육신전』을 임금에게 읽어보라고 권유하고, 또 한 사람은 그를 토대로 <원생몽유록>을 지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武俠을 좋아하여 호걸이라 자처했는가 하면, 詩를 잘 짓는다는 명성이 자자했던 임제⁴⁶⁾이고 보면,

44) 『선조수정실록』, 선조 9년 6월 1일(임술).

45) 박계현과 임제의 관계에 대해서는 신해진, 「원생몽유록의 작가론적 고찰」, 우례재, 앞의 책, 244~246쪽 참조.

46) 『선조수정실록』, 선조 23년 4월 1일(임신).

그 사람이야말로 『육신전』을 문학적으로 풀어내는 책임자가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생몽유록> 역시 不穩한 작품일 수밖에 없을 텐데, 임제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위험한 작품을 썼던 것일까?

② <원생몽유록>은 정신적·문학적으로 <조의제문>과 『육신전』을 충실하게 계승한 서사우연이다. 명분에 어긋난 불의에 대한 항거의 정신, 그리고 이를 몽유 형식으로 드러낸 창작 수법의 측면에서 그러하다. 특히, 『육신전』과는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보다 밀접하면서도 직접적인 관계에 있었다. 때문에 『육신전』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저간의 사정을 살핌으로써, <원생몽유록>의 창작 배경 및 창작 의도를 추적해 보기로 한다.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은 숙종 17년(1691)에야 비로소 사육신이 伸冤된다는 사실이다. 죽은 지 200년이 훨씬 넘어서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박계현은 선조 9년(1576)에 벌써 성삼문을 충신이라 공공연히 추켜세우고 있다. 선조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태도를 취했던가? 박계현이 『육신전』을 추천하여 소동이 일어난 지 한 달쯤 되었을 무렵, 선조는 『육신전』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삼정승을 불러 이렇게 말문을 연다.

이제 이른바 『육신전』을 보니 매우 놀랍다. 내가 처음에는 이와 같을 줄 생각지도 못하고 아랫사람이 잘못된 것이려니 여겼었는데, 직접 그 글을 보니 출처 않은 데도 떨린다. 지난 날 우리 光廟[세조]께서 천명을 받아 中興하신 것은 진실로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저 南孝溫이란 자는 어떤 자이길래 감히 文墨을 희롱하여 국가의 일을 드러내어 기록하였단 말인가? 이는 바로 我朝의 죄인이다. 옛날에 崔浩는 나라의 일을 드러내어 기록했다는 것으로 誅刑을 당하였으니, 이 사람이 살아 있다면 내가 끝까지 推鞠하여 죄를 다스릴 것이다.⁴⁷⁾

선조의 말에는 서릿발 같은 분노가 서려있었다. 그런 목소리로 『육신전』의 내용상 오류를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다. 단종의 나이를 잘못

47) 『선조실록』, 선조 9년 6월 24일(을유).

적고 있다는 점, 수양대군이 사은사로 중국에 갔을 때의 일을 잘못 기록하고 있다는 점, 하위지가 계유정난 때 선산으로 낙향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 등등. 그리고 성삼문을 비롯한 사육신이 진정 충신들이냐며 꼬치꼬치 따져 묻는다. 충신이었다면 세조가 受禪하던 그 날 바로 자결하거나 백이·숙제처럼 벼슬을 내놓고 떠났어야 했다는 게 주요 골자다. 사태에 대한 선조의 평가가 적절한지는 차치하기로 하자. 다만, 사육신을 충신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그리하여 복권시킬 수 없다는 선조의 굳은 의지만큼은 분명하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선조의 불같은 진노 앞에서 허둥대고 있는 삼정승의 태도이다. 이들은 『육신전』을 모두 찾아내 불태워버리고, 책을 거론하는 자들까지 죄주라는 선조의 분부를 받자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책을 간직하고 있는 집도 별로 없는데 수색한다고 소란을 피우면 이로울 게 없고, 책을 입에 담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면 誣告하는 자들이 생길지 모르니 굳이 焚書를 내릴 필요가 없다는 게 방어의 논리였다. 측은할 정도로 간절하게 아뢴 덕분에 선조는 노여움을 풀고 법령을 잠시 보류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대목이 선조를 그토록 진노케 했던가? 스스로 밝히고 있듯 엉터리 같은 말로 자신의 先祖, 곧 世祖를 모욕한 게 가장 큰 이유였다. 어느 정도였는지, 직접 읽어보기로 한다.

임금이 말하였다. “너는 내 녹을 먹지 않았느냐? 녹을 먹고도 배반을 하였으니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명분은 상왕을 복위시킨다고 하지만, 실상은 네가 임금이 되려고 한 것이지.” 성삼문이 말하였다. “상왕이 계시는데, 나으리[進賜]가 어찌 나를 신하라 하오? 또 나으리의 녹은 먹지 않았으니, 만약 믿지 못하겠다면 내 가산을 몰수하여 세어 보시오.” 임금이 몹시 노하여 무사를 시켜 쇠를 불에 달구어 그 다리를 꿰고, 그 팔을 자르게 했으나 얼굴빛이 변하지 않았다. 성삼문은 천천히 말하였다. “나으리의 형벌이 너무 참혹하오.”⁴⁸⁾

48) 南孝溫, <六臣傳>, 이재호 역주, 『金鰲新話 附: 六臣傳, 元生夢遊錄』, 과학사, 1980, 203쪽.

과연 세조는 피도 눈물도 없는 冷血漢처럼 그려져 있다. 이렇게 그려진 자기 先祖를 보고 화를 내지 않는다면 宣祖는 후손도 아니다. 그렇지만 남효혼이 『육신전』을 창작한 의도가 세조를 직접적으로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남효혼은 여섯 명의 곧은 행적을 차례로 소개한 뒤, 이런 말로 『육신전』을 끝맺고 있기 때문이다.

惠莊大王[世祖]이 재상으로 있을 때는 공이 周公에게 견줄 만하였고, 임금으로 계실 때는 덕이 虞舜과 같아서 높고 넓은 공덕은 백성들이 지칭할 수가 없었으니, 六臣이 굴복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하자 될 일이 있었겠는가? 伯夷가 西山에서 고사리를 캐 먹고 있어도 주나라 武王의 덕은 추락되지 않았으며, 嚴子陵이 桐江에서 물고기를 낚고 있어도 한나라 光武帝의 공은 손상이 없었으니, 아아, 六臣으로 하여금 金石에 丹心을 기탁시키고 江湖에 白首를 보전하도록 했더라면 上王의 수명도 연장시킬 수 있을 것이고, 世祖의 治化도 더욱 융성했을 터인데, 불행히도 마음속이 격분하여 마침내 焦熱의 九原에 떨어지게 되었으니 슬픈 일이다.⁴⁹⁾

조금은 실망스럽게 읽힐지 모르지만 이것이 실상이다. 사육신을 너그럽게 용서해주었으면, 단종은 단종대로 수명을 연장할 수 있었고, 세조의 치세와 교화도 더욱 융성해졌을 것이라는 게 결론이다. 세조는 세조대로, 사육신은 사육신대로 인정하는 것! 여기서 우리는 이성계와 정몽주의 엇갈린 평가를 상기해도 좋으리라. 이성계는 이성계대로 새로운 국가를 세운 건국주로, 정몽주는 정몽주대로 자신의 충절을 다한 충신으로 기려지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평가를 말이다. 두 인물은 결코 양립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서로 존송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傳記 형식으로 씌어진 『육신전』의 이런 주제 의식이 寓言 형식으로 씌어진 <원생몽유록>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49) 南孝溫, <六臣傳>, 이재호 역주, 같은 책, 213쪽.

③ <원생몽유록>에서 문제 삼고 있는 사건은 분명해 보이지만, 몽유로 담은 우언이 대체로 그러하듯 寓意의 참뜻을 분별하기란 간단치 않다. 게다가 작가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아 창작시기도 1세기를 오르내리는 형편이고 보면, ‘문제적 사건’을 다룬 ‘문제적 작품’인 <원생몽유록>은 읽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도 복잡하게 엮이고 있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몽유자 元子虛는 본디 없는 인물이란 뜻으로 임제가 가탁한 허구적 인물인가, 아니면 원호가 자신을 직접 내세운 실제적 인물인가? 둘째, 꿈의 세계로 인도하는 幅巾子는 南孝溫인가, 아니면 崔德之(1384~1455)인가? 셋째, 작품 말미에서 소회를 토로하고 있는 海月居士(또는 梅月居士)는 원자허와 마찬가지로 바다에 비친 달이란 뜻으로 假想의 인물인가, 아니면 임제(또는 원호)와 친분이 있던 黃汝(또는 金時習)인가?⁵⁰⁾

이렇게 작자, 창작시기, 등장인물의 문제가 미궁에 빠지게 되면, 불가불 <원생몽유록> 연구는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전』과의 관계를 통해 <원생몽유록>의 내부를 새롭게 조망할 필요가 있다. 『육신전』은 <원생몽유록>을 산생시킨 모태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했듯, 남효온이 『육신전』을 통해 의도했던 바는 단종의 복위를 도모하다 죽은 여섯 신하의 충절에 새롭게 의미 부여를 해서 이들을 복권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왕위 찬탈 전의 수양대군을 周公에 비유하고, 왕위 찬탈 뒤의 세조를 虜獒에 견주어 칭송한 것도 그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가슴 아픈’ 일시적 방편이었다. 하지만 남효온의 바람은 당대에는 말할 것도 없고 한 세기를 훨씬 넘긴 선조 9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니, 불온한 말을 지어낸 남효온이 살아 있다면 끝까지 推鞠해서 죄를 묻겠다고 할 정도로, 오랜 시간이 지났건만 선조 초년은 여전히 살벌한 분위기였다. 사림들에게 사

50) 전자를 주장하는 경우는 <원생몽유록>의 작자를 임제로 보는 경우이고, 후자를 주장하는 경우는 작자를 원호로 보는 경우이다. 학계에서는 대체로 전자를 지지하고 있지만, 최근 꼼꼼한 문헌비판을 통한 원호 창작설이 제기되어 논쟁이 제워지고 있는 국면이다. 원호 창작설에 대해서는 양승민, 「원생몽유록 작자분계의 허실」, 『어문논집』 38집, 안암어문학회, 1998을 참조할 것.

육신의 충절은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이들을 복권시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육신전』이 조정에서 문제가 된 宣祖 9년 무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때는 훈구들과 피비린내 나는 반복을 거듭하던 사림들이 명종 후반기 이래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해 나가던 시절이다. 그런 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士林 자신의 정치적 존립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었다. 성리학적 이념에 입각한 대의명분이 대대적으로 강조되던 것도 그런 의도에서였는데, 그때 훈구세력에 의해 거세되어 버린 ‘여섯 역적’을 ‘여섯 충신’으로 되살리는 것보다 적절한 사례는 없었다. 그리하여 박계현이 經筵에서 『육신전』을 거론한 것을 필두로 하여 이들의 충절을 기리는 사업을 公論化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임제의 <원생몽유록> 창작과 거기에 담긴 함의도 이와 같은 사회·정치적 맥락에서 읽을 수 있겠다. 거칠게 말하는 것이 허락된다면, 사림들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사육신의 충절을 꿈이라는 가상현실로, 하지만 매우 정치적인 가상현실로 재구해 냈던 것이다.

여기에서 이들 여섯 신하의 충절을 어떻게 우의하고 있는가를 자세하게 다룰 겨를은 없다. 다만, 현재 엇갈리고 있는 작품의 등장인물이 누구이며 이들이 왜 등장하고 있는가를 따져보기로 한다. 거기에 <원생몽유록>의 깊은 뜻이 寓意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종과 사육신을 제외하면, <원생몽유록>에는 세 사람이 더 등장한다. 몽유자인 원자허, 인도자인 복건자, 그리고 평결자인 매월거사가 그들이다. 우리는 이들을 실존인물 元昊, 南孝溫, 그리고 金時習로 추정한다. 그 근거를 밝히는 것은, 임제가 <원생몽유록>을 통해 寓意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다. 이들은 <원생몽유록>의 모본격인 『육신전』에는 등장하지 않던 인물이다. 그러던 인물이 여기서 처음 등장했던 것이다. 먼저, 남효온을 보자. 남효온이 몽유자를 단종과 사육신이 모여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幅巾者로 설정된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건 바로 ‘一編野史’, 곧 『육신전』을 창작했기 때문이다. 그 책을 읽음으로써 역사의 뒤편으로 스러져버릴 지도 모를 사육신의 충절을 우리들은 두고두고 기억할 수 있게 되었던바, 그런

공로를 그렇게 寓意했던 것이다. 단종과 사육신이 모여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는 식으로 말이다. 요즘의 우리는 남효온을 생육신의 한 사람으로 당연히 간주하지만, 그가 생육신의 한 사람으로 공인되는 길을 추적해 보면 사육신이 복권되는 것 이상으로 길고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스스로 뜻을 세상에 행할 수 없음을 알고 드디어 방임하여
업매이지 않아 時俗과 더불어 오르내리지 않았고, 老·莊의 高
虛한 논의를 본받아서 愷慷·완적의 방달한 행동을 하였으며,
문장을 함에 있어서도 超邁하여 固滯한 누습이 없었다. 더욱이
시에 능하여 당나라 시인의 풍격이 있었는데, 불공평한 세상에
격분하여 유리하여 異端이 되어 죽음에 이르도록 깨닫지 못했으
니, 진실로 우리 道의 罪人이라 하겠다.⁵¹⁾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남효온의 卒記이다. 昭陵復位에 대한 상소를 올려 일약 세인의 관심을 받았던, 제주 땅고 강지하던 젊은 儒生 남효온은 이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야 했다. 그런 과정에서 老莊을 넘보기도 했던 그를, 당시 사람들은 ‘우리 도의 죄인’이라 부르며 이렇듯 싸늘하게 평가하고 있었다. 중종반정이 지나서 비로소 새로운 평가를 받긴 했지만, 그때[중종 6년]까지만 해도 남효온은 소릉복위의 상소를 올린 기개와 제주 땅던 文士로서 기억될 뿐이었다. 그러다가 단종의 능묘에 가서 곡을 했다는 점[중종 14년], 『육신전』을 지었다는 점[선조 9년] 등으로 그에 대한 기억의 범위를 점점 넓혀간다. 그런 사정은 매월당 김시습도 마찬가지다. 중종 6년 남효온과 함께 시를 잘 짓는 문사로 조정에서 치음 거론되었던 그는, 선조가 율곡 이이에게 김시습의 傳記를 지어 바치게 함으로써 전국적인 명성을 획득한다. 그곳에서 이이가 계유정난에서 비롯된 젊은 날의 충격, 그리하여 心儒跡佛으로 평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면서 김시습의 기이한 행적과 승려로서의 삶을 애써 변호했던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는 바와 같다.

선조대에 이르러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신적 계보를 죽음으로 충절

51) 『연산군일기』, 연산군 4년 8월 16일(기묘).

을 지킨 여섯 신하, 그리고 비록 죽지는 않았지만 살아서 충절을 지킨 인물을 발굴·복권시키는 작업에 전심전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결실은 하나씩 맺어지기 시작했다. 김시습·남효온에게 旌閭가 내려지고, 다시 원호가 거기에 추가되고, 그걸 보고 趙旅의 후손들은 자신의 선조를 이들과 같은 전례에 의거해 증직·정려해 줄 것을 간절하게 요구하고! 그리하여 정조 15년, 마침내 장릉에 配食壇을 세워 이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대규모 작업을 완료했던 것이다. <원생몽유록>은 바로 이런 기나긴 도정에서 단종의 비극적인 죽음, 사육신의 장렬한 충절, 그리고 비록 죽지는 않았지만 구차한 삶을 거부했던 생육신의 충절을 은밀하면서도 강력하게 재기하고 있었던 작품이다. 그들의 정치적 욕망을 꿈의 형식을 통한 寓意를 통해 公論化하려는 목적, 그를 통해 자신의 사회·정치적 입지를 구축하는 데 몽유록은 이처럼 적극 기여하게 된다. 16세기 서사문학사의 지평 위에서 서사우언이 그토록 비중 있게 창작되었던 것은, 그때가 적극적인 이념적 모색기이자 새로운 정치질서로 급속하게 재편되던 시기였던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4. 맺음말

우리는 이제까지 16세기 서사문학사의 지평과 그에 따른 미학적 층위를 살폈다.⁵²⁾ 최근 주목 받고 있는 16세기는 『목재일기』 뒷면에 적혀 있는 <설공찬전>·<왕시봉전>·<주생전> 등 5편의 국문/국문본

52) 16세기 서사문학사는 앞서 다룬 세 개의 유형 외에 서사로 윤리적 교화의 의도를 이루고자 했던 翻案小說이 있다. 윤주필 교수도 16세기의 소설사를 ‘우언계 소설’, ‘실기계 소설’, ‘애정전기소설’, 그리고 ‘변안소설’로 유형화한 바 있다(윤주필, 『윤리의 서사화』, 국학자료원, 2005). 여기에서 변안소설로 들 수 있는 작품은 <오류전전>·<왕십봉기우기> 등인데, 이들의 미적 특질은 별고를 통해 다룬 바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면상 할애하지 않기로 한다(변안소설의 미학적 특질에 대해서는 정출현, 「표기문자의 전환에 따른 고전소설 미학의 변이양상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제23집, 민족문학사학회, 2003을 참조할 것). 뿐만 아니라 16세기 서사문학사의 지평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국지연의』를 비롯한 중국장편소설들이 대거 수입되어 널리 읽혔던 상황도 면밀하게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다. 그 점, 별도의 논의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고전소설의 발굴, 16세기 목판으로 발간된 『금오신화』 조선간본의 발굴, 전기소설의 다채로운 국면을 시사하는 <최문헌전>의 창작 시기 확인, 그리고 17세기 이전 전기소설사의 판도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신독재수택본전기집』의 완전 공개와 같은 일련의 사건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 탐구해야 할 연대기임이 확실해졌다. 앞서 살핀 우리의 논의 역시 이런 문제의식에 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였다. 우리는 본고에서 이루어진 작업을 통해, 대략 다음과 같은 방면으로 추후 논의를 확장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첫째, 조선 전기 사대부 문인의 문예취향과 연계하여 전기소설의 서사세계를 고찰함으로써 이들 상호간 共有의 실상은 물론 分立의 지점을 보다 선명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작업은 전 근대 동아시아 고전서사문학에서 범박하게 사용되던 ‘小說’의 범주로부터 근대적 의미의 소설 갈래가 분화·발전되어 나가는 실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있어서도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둘째, 조선 전기 사대부 문인의 복잡한 세계관과 전기소설의 다층적 미의식을 관련지음으로써 단순하게 규정되던 전기소설의 서사문법 또는 미학적 특질을 보다 정치하게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리학적 이념으로 무장한 것으로 간주되던 麗末鮮初 1:大夫 문인에 대한 고정된 인식을 근본적으로 재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그를 통해 조선전기 사회·문학의 다층적 양상을 해명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중국에서 유입된 장·단편소설의 번안·번역과정을 폭넓게 검토함으로써 우리 고전소설이 ‘통속성’과 ‘교훈성’을 결합시켜 본격적인 국문소설의 시대를 열어간 경로와 실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내야 할 것이다. 그런 작업을 통해 17세기 이후 사대부 남성들에 의해 창작된 규방소설의 전통 및 고전소설의 문학사회학적 역할을 해명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어: 16세기, 서사문학, 인물서사, 전기소설, 서사우연, 사실성, 허구성, 개승, 변주, 욕망, 우의.

참고 문헌

- 강상순, 「고소설에서 환상성의 몇 유형과 환몽소설의 환상성」, 『고소설연구』 제15집, 한국고소설학회, 2003. 6.
- 박영희, 「17세기 才子佳人小說의 수용과 영향」, 『한국고전연구』 제4집, 한국고전연구학회, 1998. 11.
- 박일용, 「금오신화와 전등신화에 나타난 애정모티프의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 『동아시아문학 속에서의 한국한문소설 연구』, 월인, 2002.
- 박희병, 「한국·중국·베트남 전기소설의 미적 특질 비교」, 『베트남의 기이한 옛이야기』, 돌베개, 2000.
- 박희병, 『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 소명출판, 2005.
- 소인호, 「나말·선초 전기문학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6.
- 신재홍, 「숙향전의 미적 특질」, 『다국 이수봉 박사 정년기념 고소설연구논총』, 경인문화사, 1994.
- 윤주필, 「16세기 사림의 분화와 洛西居士 李沆의 五倫全傳 번안의 의미」, 『국어국문학』 제131호, 국어국문학회, 2002.
- 윤주필, 『윤리의 서사화』, 국학자료원, 2005.
- 윤재근, 「기재기이 — 우의의 소설미학」, 『한국한문학연구』 제24집, 한국한문학회, 1999. 10.
- 이복규, 「왕시봉전·왕십봉기우기·형차기의 비교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29집, 한국문학회, 2001.
- 임수현, 「남염부주지의 환상성 연구」, 『서강어문』 제15집, 서강대, 1999. 12.
- 정 민, 「주생전의 창작 기층과 문학적 성격」, 『한양어문연구』 9, 한양대, 1991.
- 정길수, 「왕십봉기우기의 개작 양상과 소설사적 위상」, 『고전문학연구』 제19집, 한국고전문학회, 2001.
- 정출현, 「최고운전을 통해 읽는 초기 고전소설사의 한 국면」, 『고소설연구』 제14집, 고소설학회, 2002.
- 정출현, 「한문소설의 미적 특성과 그 구현양상에 대한 검토」, 『한국한문학연구』 제29집, 한국한문학회, 2002. 6.
- 정학성, 「왕시봉기우기에 대한 고찰」, 『고소설연구』 제8집, 한국고소설학회, 1999. 12.
- 정환국, 「17세기 초 소설에 미친 元明傳奇小說의 영향에 대하여 — 주로

- 구조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한문학보』 제1집, 우리한문학회, 1999.
- 조현설, 「조선전기 귀신이야기에 나타난 神異 인식의 의미」, 『고전문학연구』 제23집, 고전문학회, 2003.
- 최용철, 「금오신화 朝鮮刊本 발굴과 판본에 관한 고찰」, 『민족문화연구』 제32집, 민족문화연구원, 1999.

Abstract

The Phase of the History of the Narrative Literature in the 16th Century and its Aesthetic Horizon

Chung, Chul-Heon

The sixteenth century's novels have not get much attention in the history of classical novels. They remained as vacuum in the history of novels or played a bridge role connecting the novels of fifteenth century and those of seventeenth century. However, the place of novels of sixteenth century in the history of classical novels are getting more and more important through recent discovered and introduced materials. It is required to study the phase of the history of the narrative literature in the sixteenth century and its aesthetic characteristics in order to cope with this situation positively.

This study pointed out some perspectives briefly that we should keep in mind when we comprehend the phases of the history of narratives in the sixteenth century. First, various inclinations of the history of narratives in the early Joseon period ; second, the worldview of confucian scholars in the early Joseon period and the complexity of literary aesthetics and third, the new role and the place of narrative genre. We should bear in mind the actual condition of the narrative history of intertwinement and division of genres such as Pilgi(筆記), Peseol(稗說) and Jigwe(志怪), Jeongi(傳奇) as well as complicated aspects of literary aesthetics among confucian scholars and seemingly contradictory but combined phase of narrative interest and ideological instruction.

With the above basic understanding this article examined the aesthetic qualities being cultivated in the narrative history of the sixteenth century by major types. The first type is human narratives, the second type is Jeongi novels and the third type is narrative

allegory. This article focused on the most important works among them such as Seolgongchan Story(薛公燦傳), Gijegiyi(企齋記異), and Wonseng Mongyurok(元生夢遊錄).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are identified :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human narratives of the reality of Pilgi, Peseol genres and fictional inclination of Jigwe, Jeongi genres; the aesthetic qualities of Jeongi novels which succeeded and varied the existing Jeongi novels' narrative grammar, characters and episodes in a various way;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narrative allegory that publicized confucian scholars' strong desires in the form of fables. This discussion is expected to suggest useful clues to elucidate the process of division of novel genres from premodern narrative literature, diverse strata of confucian scholars' literature in the early Joseon period, and the entire history of the seventeenth century's novels that opened the era of novels.

* **Key Words:** sixteenth century, narrative literature, character narrative, Jeongi novels, narrative allegory, reality, fictionality, succession, variation, desire, allegory.

논문투고일 : 2005년 9월 5일

심사완료일 : 2005년 10월 9일

게재결정일 : 2005년 10월 8일